

요한복음에서 오순절의 자리

김휘준*

1. 들어가는 말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성령의 받으라(λάβετε πνεῦμα ἅγιον)”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고 조화될 수 있는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직하게 아직 우리는 만족할만한 이해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¹⁾ 이 문제는 예수가 부활한 후 제자들 무리에게 나타나 가르친 첫 번째 내용(요한복음 20:19-23)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중요성이 가뻐지 않다. 또한 교회사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주석적 견해차를 넘어서서 오순절주의와 복음주의를 위시한 다양한 교파 간의 성령이해와 실천의 대립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주석적인 측면에서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아직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성서학의 과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20:22의 이해에 기여해 온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여섯 학자, 도널드 카슨(Donald A. Carson), 레이몬드 브라운(Raymond E. Brown), 제임스 던(James D. G. Dunn), 로버트 멘지스(Robert P. Menzies), 막스 터너(Max M. B. Turner) 그리고 김동수의 주장을 선택하였다. 이들의 통찰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교착된

* 평택대학교 신약학박사.

1) Colin G. Kruse, *John: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2nd ed.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7), 488.

논의의 진전을 위한 해석적 기초를 다시 점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요한복음 20:22의 새로운 이해를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가진 신학적 논리와 요한복음 20:22이 반향하는 창세기 창조이야기의 인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그동안 조화롭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요한복음 20:22과 사도행전 2장의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요한복음 20장 22절과 사도행전 오순절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도널드 카슨(Donald A. Carson)은 요한복음 20:22의 성령수여가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전망하는 상징적 행동이라고 이해했다.²⁾ 부활절 저녁 제자들에게 현현한 예수는 실제로 성령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 곧 임할 오순절 성령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논거로서, 먼저 동사 ἐμφύσω(숨을 내쉬다)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다’가 아닌, 일상적인 숨을 내쉬는 행위에 대한 묘사라면, 이 구절의 초점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명령에 있다. 여기서 예수의 명령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즉각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요 12:20)”라는 명령문이 반드시 그 시간에 성취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복음서의 다른 사례처럼, 여기서도 즉각적 성취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 문제는 여기서의 성령수여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2) Donal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651-55, Carson은 Theodore of Mopsuestia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AD 553)에서 정죄되기는 했지만 뛰어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Andreas J. Köstenberger, *John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571-76.

과 달리 제자들의 삶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 성령수여가 있었다면 도마가 왜 이 성령수여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오순절 사건의 역사성이 초기 교회의 공통된 역사적 유산이었다면 요한복음 저자가 왜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³⁾ 요한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전제를 양보하고, 이 복음서 이후에 이루어질 오순절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꼭 부당한 해석으로 치부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요한복음 20:22의 성령 수여를 상징적 행동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신학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정당한 해석이라고 그는 주장했다.⁴⁾

요한복음 20:22의 성령수여가 제자들의 삶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카슨의 지적은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수여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은 요한복음이 창세기 창조를 연상시키는 특별한 단어 *ἐμφύσω*를 의도적으로 채택하면서 보내는 저자의 신호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반드시 모든 이야기를 자체적인 완결로 받아들이기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과 오순절 전통의 공통적인 인식을 전제하는 초기 교회의 상황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모든 전망을 요한복음 밖으로 돌리면서 요한복음 20:22 자체의 의미를 상징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이 복음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희생하면서 사도행전에 조화시킨다는 느낌을 준다. 이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이 반드시 요한복음 20:22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레이몬드 브라운(Raymond E. Brown)을 포함한 다수의 학자들은 요한복음 20:22의 성령 수여를 요한복음의 신학적 의도가 일관되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⁵⁾ 따라서 이와 사도행전 2장의 긴장을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

3) Carson, *John*, 653.

4) Carson, *John*, 655.

5)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XIII-IXX* (AB: 29a; Garden City:

를 본문해석에 불필요한 전략이라고 보았다. 두 문서가 서로 연관되었다는 증거나 각 문서에서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기에, 이 둘을 조화시키려 할 필요가 없다. 각 문서가 보여주는 설명의 차이는 고유한 신학적 의도의 반영이므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이 가진 기능을 요한복음에서는 20:22이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안에 있는 모든 성령에 대한 약속은 20:22에서 성취되었다고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요한식 오순절(the Johannine Pentecost)”라고 부르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⁶⁾

신약성서 각 책이 고유의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이해는 자신의 고유한 문학적 전략 안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전제는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바람직한 해석 원리이다. 그러나 이를 사실성의 왜곡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면, 성서의 진실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면서 오히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브라운은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사건이 꼭 오순절이라는 시간에 일어났느냐와 상관없이 저자가 이를 오순절을 배경으로 제시하는 문학적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⁷⁾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요한복음이 쓰이고 읽힌 초기 교회의 공통적 정황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카슨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미 오순절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독자가 이 사건을 대할 때 가질 혼란은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뿐만아니라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의 존재를 몰랐을 것이라는 전제도 이 복음서가 보여주는 암시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⁸⁾

제임스 던(James D. G. Dunn)은 먼저 요한복음의 신학적 통일성 안에서 20:22을 이해하려고 한다. 요한복음은 성령의 도래가 예수의 영광을 얻음,

Doubleday, 1970), 1038; Beasley-Murray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오순절 전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학적 의도를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G. R. Beasley-Murray, *John*, WBC 36 (Waco: Word, 1987), 382; 조석민 『(이해와 설교를 위한) 요한복음』 (서울: 이레서원, 2019), 485.

6) R. E. Brown, *John*, 1039.

7) R. E. Brown, *John*, 1039.

8) Richard Bauckham, “The Fourth Gospel as the Testimony of the Beloved Disciple,” Carl Mosser ed. *The Gospel of John and Christian Theology* (Cambridge: Eerdmans, 2008), 120-139.

또는 높여짐을 전제한다는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0:22의 성령 수여는 요한복음 안에서 성령에 대한 여러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⁹⁾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후속하는 오순절에 대한 이해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적 통일성을 견지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 예를 들면 보혜사에 대한 약속은 예수 부재와 함께 일어나는 성령 수여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령 수여의 시간적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¹⁰⁾ 그런 의미에서 던은 브라운과 달리 요한복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 대목에서 던은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세례 전에 사도들이 중생을 이미 경험했을 가능성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주의와 분명히 대립하는 대목은 이러한 중생과 성령세례의 분리가 첫 사도들에게 국한된 일이라는 점이다. 사도들에게 요한복음 20:22과 사도행전 2장의 경험이 분리된 이유는 이들이 살았던 때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구속사적 전환기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¹¹⁾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예수의 초림이 가져온 시대의 전환 가운데 있었던 유일회적인 일일 뿐이다. 바울신학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세례와 중생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경험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요한복음 20:22은 사도의 경험에 국한된 일회적인 새 생명을 주는 성령의 수여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순절 사건을 고려할 때 요한복음 20:22이 성령의 약속에 대한 충분한 성취일 수 없다는 것과 부활절날 사도들의 경험이 구속사적 전환기에 일어난 것이라는 던의 판단은 적절하다. 그런 의미에서 중생과 구분된 성령세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오순절주의의 입장이 요한복음 20:22에 근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중생의 경험과 구분되는 성령세례의

9) James D. G. Dunn, *Baptism in the Holy Spirit* (London: SCM, 1970), 175.

10) Dunn, *Baptism*, 177.

11) Dunn, *Baptism*, 181.

가능성이 요한복음 20:22에 의해 지지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20:22의 새 생명을 주는 영과 행 2장의 성령세례가 같은 종류의 경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는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성령의 역사라면 오순절 이후에 중생이 성령 세례를 포괄한다고 하는 주장은 성립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던의 설명에서 요한복음 20:22이 실제적인 성령의 수여이며, 이는 생명의 주는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오순절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는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는 요한복음 20:22의 성령수여와 오순절의 성령수여를 다른 성격의 것으로 이해한다.¹²⁾ 그는 요한복음에는 다양한 성령론이 혼재하는데, 이를 단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요한복음 20:22과 사도행전 오순절의 긴장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대신 이 둘을 오순절주의의 입장처럼 하나는 생명을 주는 중생의 성령 수여로, 다른 하나는 선교를 위한 능력부여의 성령 수여로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다. 즉, 요한복음 1-12장에 등장하는 성령에 대한 언급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묘사하고 있고, 14-16장에 등장하는 보혜사에 대한 언급은 증언하는 사명과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22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수여에 대한 성취를 언급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의 수여는 이 복음서가 언급하지는 않지만 후속하는 성취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멘지스는 이렇게 서로 구분되는 두 성령의 수여에 대한 생각이 초기 교회가 겪었던 성령에 대한 인식의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¹³⁾ 누가행전이 보여주는 성령에 대한 인식은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는 예언의 영으로서 은사적인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다르게, 1세기 유대교에서 흔하지 않았던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12) Robert P. Menzies, 김동수 역, “초기교회 성령론 발전에 있어서 요한의 위치,” 「오순절신학논단」 9 (2011), 243-46.

13) Menzies “성령론 발전,” 243-46.

이것은 바울이 가져온 성령론의 새로운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와 바울이 전개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성령론은 초기 교회의 성령 이해에 긴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를 해소하는 통합적 성령 이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요한복음이 초기 교회의 성령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정이 가져온 결과이며, 요한복음 20:22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바울적 성령론의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언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⁴⁾

멘지스의 견해는 요한복음 20:22과 오순절 사이의 연관을 조화롭게 이해하는데 설득력있는 도움을 준다. 두 성령 수여를 다른 성격의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조화의 시도를 피하게 하면서, 초기 교회가 겪었음직한 성령에 대한 이해과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누가의 성령론을 지나치게 바울의 것과 분리시키면서 심지어 누가가 바울의 저작을 몰랐거나 읽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상정하는 것은 두 성령론에 대한 지나친 분리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¹⁵⁾ 누가와 바울을 대립시키는 것이 과연 초기교회에 있었던 성령론의 실제적인 논쟁이었는지, 아니면 바울과 누가는 서로의 성령론을 충분히 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강조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오순절주의의 관점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격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통찰로 보인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령론이 어떻게 분리되어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지, 즉 이 두 성령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성령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여기에 오순절주의 성령론의 약점을 극복하게 할 통찰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김동수는 요한복음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 멘지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분리되어 하나는 요한복음 20:22에서 다른 하나는 오순절에 성취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비판한다.¹⁶⁾

14) Menzies, “성령론 발전,” 243-46.

15) Robert P. Menzies, *Empowered for Witness: The Spirit in Luke-Ac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240-42.

그는 요한복음 20:22이 1-12장의 성령에 대한 성취만이 아니라 14-16장 보혜사에 대한 성취라고도 볼 증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키너의 주장의 따라 요한복음 1-12장에 묘사된 성령은 “정결의 영”으로, 요한복음 14-16장의 보혜사를 “예언의 영”으로 이해한다.¹⁷⁾ 전자는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이고, 후자는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¹⁸⁾ 새 창조를 가리키는 용어가 사용된 요한복음 20:22이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관계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요한복음 20:22은 분명히 선교와 파송의 맥락 속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받으라(λαμβάνω)”의 사용은 초기 교회의 성령 수여에 대한 관용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멘지스의 견해와 달리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령이 분리되어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22에서 통합되어 수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수는 이를 “통합성취론”이라고 명명했다.¹⁹⁾ 요한복음은 두 가지의 성령의 활동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요한복음 20:22에서 모두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수의 주장은 요한복음 20:22이 보여주는 문맥적 의미에 충실하고 있고, ‘성령을 받는다’가 가진 초기 교회의 용어 사용의 맥락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요한복음의 내부적 맥락에서 요한복음 20:22이 갖는 위치를 잘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22에서 모든 성령의 수여가 통합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본다면 여전히 사도행전 오순절의 자리는 남지 않는다. 이것은 다시 브라운의 주장이 가진 문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요한복음 안에서 두 가지 성령 수여의 구분이 주는 의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6) 김동수, “성령을 받으라(요한복음 20:22),” 「신약논단」 26:4 (2019), 981-1010.

17) 김동수, “성령을 받으라,” 991.

18) 김동수, “성령을 받으라,” 993-99.

19) 김동수, “성령을 받으라,” 983.

마지막으로 살펴볼 막스 터너(Max Turner)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성령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선물로 종합하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터너는 요한복음 20:22이 보혜사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²⁰⁾ 왜냐하면, 요한복음 20:22의 상황이 보혜사가 오기 위한 조건들을 충분히 성취하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수의 부재가 보혜사가 오는 조건이라면 아직도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 또한 보혜사의 활동인 예수의 가르침을 명료화하고, 이를 증언하게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미 보혜사가 왔다면 도마는 예수를 만지지 않고도 믿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22이 결정적인 성령의 선물을 가리키는지에 의문이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의 시간 너머에 있는 결정적 사건을 추정하게 만든다고 결론내린다.

터너는 요한복음 20:22이 새 창조를 인유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이 그 이전에 예수가 한 일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또 보혜사 약속의 성취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새 생명을 주는 성령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사건을 이해하게 하는 지혜라고 규정하면서 제자들의 성령 경험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인정한다.²¹⁾ 첫 번째 단계는 이 복음서의 시초부터 계속 이어지다 20:22에서 절정을 이루는 믿음과 연관된 체험이고, 두 번째는 예수가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진 후, 예수의 대체자로서 예수의 임재를 실현하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르치며, 세상을 향한 증거의 수단과 근원으로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는 이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다르게 보이는 이 두 경험이 어떻게 하나의 성령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그는 예언의 영으로서 성령을 이해하는 쿤란공동체의 이해 방식과 유사하게 이 두 사건을 은사적 지혜와 지식을 가져오는 성령의 기능에서 찾으려 한다.²²⁾ 그러나 이러한

20) Max. Turner, *The Holy Spirit and Spiritual Gifts in the New Testament Church and Today* (Carlisle, UK: Paternoster, 1999), 96-97.

21) Turner, *Spiritual Gifts*, 97-101.

22) Turner, *Spiritual Gifts*, 101.

두 단계의 경험은 승천의 완성과 보혜사의 도래가 이루어지던 전환기에 국한된 것이지 모든 신자에게 반복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²³⁾

터너의 견해는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한 약속을 20:22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의 문학적 완결성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가지는 난관을 벗어난다. 그러나 그는 보혜사 약속에 둘러싼 표현들을 너무 좁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²⁴⁾ 예를 들어 예수의 부재시에 보혜사를 보낸다는 것이 그 어떤 전환기적 중첩을 배제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완전한 승천을 전제하는지는 의문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20:22에서 오순절 사건과 같은 모습의 성취를 기대한다면 이는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요한복음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신학적 의미를 취한다면, 이는 이 복음서의 내적 의미 체계 속에서 정당하게 이해될 여지가 있다. 또한 성령을 예언의 영으로 이해함으로 요한복음 20:22과 오순절을 통합하려고 시도도 보혜사가 가진 성격에 대한 정당한 이해인지 의문이 있다.

요한복음 20:22과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은 각각 나름대로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와 이 사건이 가리키는 역사적 실체에 연관된 이슈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해석적 기초를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요한복음 20:22이 이 복음서 안에서 갖는 문맥적 위치와 신학적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신약성서와는 전혀 접점이 없는 고립된 것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다. 둘째,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요한복음 20:22은 창 2:7의 아담 창조를 반향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 분명한 연관이 드러내는 새 창조 모티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요한복음 20:22이 성령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듯하지만 이어지는 부활 내러티브가 보여주는 “불협화음”도 충분히 인정되고 고려될 필요가 있다.²⁵⁾ 이제 이러한 해석적 기초를 의식하면서 요한복음

23) Turner, *Spiritual Gifts*, 101-2.

24) Craig S. Keener,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2003), 1198.

20:22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사도행전 오순절의 관계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요한복음의 내적 맥락이 보여주는 20:22의 의미

3.1. 요한복음의 전체 문맥 안에서 드러나는 요한복음 20:22의 의미

요한복음 안에서 이 복음서가 언급하는 성령에 대한 모든 약속이 20:22에서 성취되었다고 읽는 것은 자연스럽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대한 지식 없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는 이 글에서 계속 거론되어 온 성령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 언급들이 20:22의 “성령을 받으라(λάβετε πνεῦμα ἅγιον)”라는 명백한 명령과 연관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 복음서에서 πνεῦμα는 총 18개 절에서 24번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관사를 가진 πνεῦμα의 단독 사용은 9회(1:22, 33a; 3:6, 8a, 8b, 34; 6:63a; 7:39a; 19:30), 관사 없는 사용도 9회(3:5, 6; 4:23, 24a, 24b; 6:63b; 7:39b; 11:33; 13:21) 발견된다. 관사 없는 πνεῦμα는 주로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독립된 실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²⁶⁾ πνεῦμα가 ἅγιον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세 번 발견되는데, 두 번은 관사 없이 나타나고(1:33b; 20:22), 관사를 가진 한 번은 παράκλητος(보혜사)가 동일한 존재로 부가되어 나온다(14:26).²⁷⁾ 세 번 등장하는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진리의

25) Keener, *John*, 1198.

26) 요한복음 19:30의 예수가 죽는 순간을 개역개정 번역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옮기고 있지만 원문에는 τὸ πνεῦμα가 사용되었다. 이것이 성령을 내어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지,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단순히 숨을 거두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것을 성령 수여로 이해하려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27) 네슬 알란드 28판에서는 요한복음 7:39a의 “그들이 받을 그 영”은 τὸ πνεῦμα가 사용되고, 이에 대한 부연설명인 7:39b의 “아직 있지 않은 성령”에서는 관사 없이 πνεῦμα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본 P⁶⁶ L W 0105 f.¹³ 33 M에서는 πνεῦμα ἅγιον의 사용이

영)는 모두 관사를 갖고 있으며 이는 παράκλητος와 그리고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과 동일한 존재로 설명되고 있다.

요한복음 20:22의 “성령을 받으라”에서는 πνεῦμα ἅγιον이 관사 없이 사용되었다. 이는 요한복음 1:33에서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ὁ βαπτίζων ἐνπνεύματι ἁγίῳ)”의 용법과 동일하다. 요한복음 14:26의 관사를 가진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은 παράκλητος와 같은 존재이며, 이는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와도 같다. πνεῦμα ἅγιον의 관사 사용 유무는 사례가 적어 그 차이를 분별하기 어렵지만 같은 표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러한 πνεύματος의 용례는 요한복음 20:22의 제자들이 받아야 할 πνεῦμα ἅγιον이 메시아가 줄 성령 세례와 그리고 약속된 보혜사와 언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성령에 대해 ‘정결의 영’과 ‘예언의 영’으로 구분하는 멘지스나 키너의 주장은 적어도 요한복음의 πνεύματος의 용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결의 영’과 ‘예언의 영’의 구분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적인 면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즉, 요한복음 20:22에서 제자들이 받는 성령이 이 둘 중의 어느 하나에 국한된다는 생각은 요한복음 안에서는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20:22의 성령수여를 멘지스가 말하는 두 가지 영의 통합적 수여로 이해해야 한다는 김동수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²⁸⁾ 적어도 요한복음의 내적 맥락은 20:22의 시점에서 약속된 모든 성령이 실제로 왔다는 것과 이를 제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1-12장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약속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3:5-6에는 성령이 위로부터 태어남에 관여한다. 3:34에는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이유로서 제한없이 주어지는 성령을 언급한다. 4:23-24은 성전에서의 예배를 대체하는 영과 진리(또는 진리의 영) 안에서의 예배를 예고한다. 6:63에서의 성령은 생명을 주는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발견된다. 만일 이를 원문으로 본다면 7:39b의 예고된 πνεῦμα도 20:22과 직접 언어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28) 김동수, “성령을 받으라,” 993-1003.

곧 말씀이다. 7:39에는 목마른 자를 만족하게 할 성령에 대해 말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 성령이 예수의 상태와 연계되어 있어서 아직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별설교에 언급되는 보혜사로서 성령의 활동은 이러한 성령에 대한 묘사와 달라 보인다. 요한복음 14:16-17에서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특히 그들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26-27은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상황에서 이 진리의 영이 예수를 증언한다. 요한복음 16:7-11에서는 이 성령은 예수가 떠나감을 대체할 것이며,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 하고, 예수의 영광, 예수에게 속한 것을 알려준다. 이것은 요한복음 1-12장이 보여주는 제자를 향한 활동과 달리, 주로 적대하는 세상을 향한 활동이다.

멘지스가 주장하는 ‘정결의 영’과 ‘예언의 영’의 구분은 성령이 하는 활동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활동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인식은 다분히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투사하여 요한복음을 읽은 결과일 수 있다. 요한복음 1-12장의 성령의 활동과 14-16장의 성령의 활동의 차이는 활동의 종류의 차이라기보다는 한 성령이 행하는 다른 상황의 반영일 수 있다. 즉, 전자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활동이고, 후자는 믿는 자가 믿지 않고 적대하는 세상을 대할 때 돕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 두 활동은 모두 말씀이라는 방식, 진리의 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혜사를 오순절식의 능력부여로 읽으려는 것은 요한복음 14-16장이 보여주는 묘사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성령은 모두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다. 보혜사가 증언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주는 계시의 활동이며, 제자들을 돕는 활동이지, 능력과 관계된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요한복음은 다양한 활동을 하겠지만, 여전히 하나인 성령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순절이 아니라 부활절에 수여된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이 수여가 왜 사도행전 오순절과 비교해서 제한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령수여가 이후에 전개되는 내러티브에서 어떤 결과를 실제로 가져오고 있는지, 나아가 이를 초기교회가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큰 또 다른 성령수여인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과 어떤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

3.2. 창세기 창조이야기의 인유가 드러내는 요한복음 20:22의 의미

요한복음은 결코 잡다한 에피소드들의 모음집이 아니다. 저자는 자신의 저술 목적을 밝히고 있고, 이를 위해 예수가 행한 많은 표적들 중에서 일부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요한복음 20:30-31).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저술되었다. 실제로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완결된 하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²⁹⁾ 이는 요한복음 20:22도 이 복음서의 전체 구조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

요한복음의 전체 문학적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레이몬드 브라운이 제안한 “프롤로그(1:1-18)-표적의 책(1:19-12:50)-영광의 책(13:1-20:31)-에필로그(21:1-25)”가 많이 받아들여져 왔다.³⁰⁾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논자는 이러한 구조분석이 본문이 제공하는 문학적 마디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저자의 의도를 간과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창세기 1-2장의 인유가 주는 단서를 따라 요한복음의 새로운 문학적 구조를 제안하였다.³¹⁾ “태초에”(ἐν ἀρχῇ)로 시작되는 요한복음은 분명히 창세기의 시작을 연상시키는 수사적 전략을 사용한다. 뿐만아니라

29) Mark Stibbe, *The Gospel of John as Literature* (Leiden: Brill, 1993).

30) R.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Gospel of John*, ed. Francis J. Moloney (New York: Doubleday, 2003), 298-315.

31) 김희준, “창세기 1-2장이 암시된 요한복음의 구조,” (철학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2019).

1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튿날”(τῇ ἐπαύριον)의 사용은 창세기 창조주간(1:1-2:3)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실마리가 제공하는 단락 구분을 창세기 창조주간과 명확히 연결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해석적 제안이 있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었다.³²⁾ 그런데 논자는 요한복음 1장이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창세기 창조이야기의 인유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를 이 복음서 전체 구성의 실마리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요한복음이 즐겨 사용하는 수사방식 상징(symbolism)에 유의하면서 1장을 창조주간과 연결시킨다. 그동안 시도되었던 여러 해석적 재구성을 배제하고 “태초에”(ἐν ἀρχῇ)와 “이튿날”(τῇ ἐπαύριον)이라는 어구를 문단을 구분하는 담화표지(discourse marker)로 간주하여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요한복음 1장이 창조주간의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인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³³⁾ 그리고 요한복음 2:1의 “사흘째 되던 날”(καὶ τῇ ἡμέρᾳ τῇ τρίτῃ)의 상징적 의미를 1장과 이어지는 창조주간과의 연계에서 찾을 수 있고, 이것이 일곱째 날 안식일과 관련이 있음을 그 본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후속하는 내러티브에서 두 번 더 등장하는 “이튿날”(τῇ ἐπαύριον)을 1장에서의 용례와 동일한 담화표지로 간주함으로써, 이것이 1장과 2장 사이에 사라졌던 창조주간의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인유와 연관될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요한복음 19:28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πάντα τετέλεσται)에 담겨있는 창 2:1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וְכֹל אֲשֶׁר דִּבֶּר יְהוָה יֵעָשֶׂה)의 반향을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분석은 요한복음 1장부터 19장까지가 창 1:1-2:3의 창조주간의 이해틀(framework) 속에서 서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요한복음 20-21장의 부활 내러티브는 창조주간으로부터 나오는 두 번째 창조이야기인 에덴이야기(2:4-25)를 인유하고 있음을 주제적 연관을 통해

32) Carlos R. S. Siliezar, *Creation Imagery in the Gospel of John*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5), 123-49.

33) 김휘준, “요한복음의 구조,” 30-51.

제안하였다.³⁴⁾ 이러한 통찰은 요한복음 전체가 창조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요한복음 20:22의 창조이미지가 결코 단편적이고 우연한 채용이 아님을 말해준다.

요한복음의 전체구조가 창세기 1-2장의 두 창조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으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창세기 창조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다.³⁵⁾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 이야기를 두 창조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시하면서 어떻게 창세기 1-2장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여기서 발견되는 특이한 사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창세기 1-2장의 두 창조이야기를 예수 이야기에서 서로 연결시킬 뿐 아니라 대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죽음을 첫 번째 창조이야기인 창조주간의 일곱째 날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창조이야기인 에덴이야기의 ‘아담의 깊은 잠’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의 가나 혼인잔치는 창조주간의 일곱째 날을 전망하면서, 에덴이야기의 마지막인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과 병치된다. 이러한 이해는 창세기의 두 창조이야기가 예수의 죽음이라는 교차점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에덴이야기를 창조주간의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창조주간의 읽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에덴이야기가 창조주간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와 같은 명시적인 마디는 보여주지 않지만, 여전히 창조과정의 단계성은 함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창세기 창조주간의 에덴이야기를 예수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시킬 수 있다.³⁶⁾

34) 창세기 1-2장의 암시를 따라 분석한 요한복음의 구조는 1:1-28이 첫째 날, 1:29-34이 둘째 날, 1:35-42이 셋째 날, 1:43-51이 넷째 날, 2:1-6:21이 전조적인 일곱째 날, 6:22-12:11이 다섯째 날, 12:12-19:27이 여섯째 날, 19:28-42이 일곱째 날, 그리고 20:1-21:25이 일곱째 날로부터 비롯되는 안식의 날들로 구분된다. 김휘준, “요한복음의 구조,” 139-42.

35) 김휘준, “요한복음의 구조,” 129.

36) 김휘준, “요한복음의 구조,” 130.

	창조주간 이야기	에덴 이야기
(첫째 날)	빛	아담
(둘째 날)	하늘	에덴
(셋째 날)	땅과 식물	땅의 나무들, 그리고 강들
(넷째 날)	광명체 (해, 달, 별)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제사장)와 명령
(다섯째 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는 동물들
(여섯째 날)	땅의 동물, 사람	깊은 잠과 배필을 지음
(일곱째 날)	안식일	한 몸을 이룸

만일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창세기 1-2장의 창조이야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창조주간과 첫째 날 빛의 창조는 에덴 이야기의 아담 창조에 대응될 수 있다. 역으로 요한복음 20:22의 ἐμφύσω가 아담의 창조를 반향한다면 이는 또한 요한복음 1장의 첫째 날, 빛의 창조(1:4)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된 요한복음 1장의 창조주간과 20장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아담의 창조를 연관지을 가능성은 더 나아가 요한복음 1장과 20-21장의 문맥적 연관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 논지는 1장과 20-21장의 인클루지오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³⁷⁾ 인클루지오는 공관복음 모두에서 발견되는 문학적 기법이고,³⁸⁾ 요한복음에서도 다수의 인클루지오가 발견되기에³⁹⁾ 이는 결코 저자에게 생소한 수사방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창세기 1-2장과 요한복음의 구조적 대응 속에서, 그리고 창조주간과 에덴이야기의 대응을 고려하여 제안된 요한복음 1장과 20-21장의 인클루지오는 다음과 같다.⁴⁰⁾

(첫째 날) 빛-아담	(1:1-28) 성육신한 말씀	(20:1-23) 새 아담
(둘째 날) 하늘-에덴	(1:29-34) 성령이 거하는 곳	(20:24-31)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셋째 날) 땅과 식물-나무와 강	(1:35-42) 베드로(반석)	(21:1-19) 양을 먹이는 베드로
(넷째 날) 광명체-제사장	(1:43-51) 참 이스라엘	(21:20-25) 증인

37) 김휘준, “요한복음의 구조,” 136-38.

38) James L. Resseguie, *Narrative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67.

39) Bauckham, “The Testimony of the Beloved Disciple,” 131-34.

40) 김휘준, “요한복음의 구조,” 136-38.

요한복음 20-21장이 놓인 문맥이 에테이아기를 바탕으로 하는 새 창조를 인유하고 있고, 또 이것이 창조주간과 대응된다고 하는 통찰은 20:22의 성령 수여를 보다 넓은 문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먼저 이는 요한복음 20:22의 ἐμψύσω가 내포하는 새 창조의 인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창조주간 첫째 날의 주제가 빛의 창조이고, 이것이 에테이아기의 첫째 날 아담의 창조와 연관된다면, 요한복음 20:22은 새 아담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 때 창조되는 새 아담은 누구인가? 얼핏 보기에는 숨을 불어넣는 행위는 창조자의 행위이고, 예수가 숨을 내쉬기에 예수는 창조자이고 제자들이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에테이아기 첫째 날의 주제는 창조자가 아니라 아담이다. 여기서 숨을 내쉬는 예수의 행위는 자신이 창조자임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새 아담임을 말하고 있다.⁴¹⁾ 이는 요한복음 20:22이 놓인 인유적 문맥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의미이다.

요한복음은 부활한 예수를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은 같은 아버지를 가진 제자들의 형제이다(20:17). 그러므로 새 아담은 먼저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긴 육체를 얻게 된 예수 자신을 가리키며, 그가 곧 새 창조물이다. 그러나 그가 새 아담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는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종류의 인류, 새 아담의 출현을 뜻한다. 그들은 죄와 사망에 대하여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자들이다. 따라서 요한복음 20:22에서 성령의 수여는 단순히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부여하는 생명이 아니라, 새 창조물로서의 예수가 자신이 가진 영원한 생명의 영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이 성령수여가 오순절 사건과는 다른 예수에게 일어난 유일회적 사건임을 이해하게 해 준다. 예수가 숨을 내쉬는 것은 자신이 새 창조가 됨으로써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새로운

41) 바울이 새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고전 15:45; 비교 롬 5:14-21)고 말하는 것에서 이미 예수를 새 아담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초기교회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성령의 활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아담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창세기 창조주간을 부르스 월키(Bruce Waltke)는 “혼돈과 공허”(חֲדָרָה וְרֵק)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에 대항하여 형태를 주는 것으로,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공허를 대항하여 채우는 것으로 이해한다.⁴²⁾ 이러한 관점은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들(광명체)이 주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요한복음 20-21장의 인클루지오 구조에 적용시키면 20:1-23과 21:20-25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한복음 20:22이 새 창조의 첫째 날로서 빛인 새 아담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넷째 날인 요한복음 21:20-25의 증인들에 대한 언급은 새 아담이 이제 증인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담의 창조와는 또 다른 주제이다. 즉 아담이 흙으로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과 그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제사장으로서 일하고(עבד) 지키는(שמר) 일을 시작하는 것은 다른 주제이다. 즉 창조이야기의 인유를 통해 드러나는 요한복음의 내러티브 구성은 요한복음 20:22이 위치한 맥락이 말하려는 것과 요한복음 21:20-25의 맥락이 드러내는 주제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연관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두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새 아담은 언제 존재하게 되었고 그 소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그 새 아담은 언제 자신의 소명과 관계된 일을 실제로 시작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가? 이것은 부활절의 성령수여와 오순절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전자는 새 아담의 태생과 관계된 것이고, 후자는 그들의 임무 수행과 관계된 것이다. 이는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불협화음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42) Bruce K. Waltke with Cathi J. Fredricks,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57.

4. 요한복음 20:22과 사도행전 2장의 조화로운 이해의 가능성

요한복음은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모르고 있는가? 명시적으로는 이 복음서 안에서 오순절 사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발견할 수 없다. 만일 요한복음이 누가의 전통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생겨났고, 그래서 누가-행전과는 다른 성령수여를 주장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20:22을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대체하는 “요한식 오순절(Johannine Pentecost)”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이 초기교회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후속하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별로 없었으리라는 정황은 이 입장의 입지를 축소시킨다. 뿐만아니라 이 복음서의 저자로 가장 개연성이 있는 사도 요한이 오순절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는 점은 더욱 이 주장의 입지를 좁힌다.

아니면 요한복음이 오순절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다른 성령수여를 말함으로 누가-행전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반박하려고 하는가? 그러나 이 입장은 신약성서 각각의 책이 가진 신학적 고유성에 지나친 무게를 줌으로 신약성서 전체의 통일성이나 초기교회 정체성의 공통적 기반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개연성이 있는 설명은 요한복음이 오순절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령수여를 강조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0:22과 사도행전 2장이 서로 모순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20:22과 사도행전 2장의 긴장과 혼란은 저자가 초래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지나치게 사도행전의 시각에서 읽으려는 독자의 착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는 이 복음서의 저자가 오순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22을 언급하는 이유를 본문이 제공하는 단서를 따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를 요청한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결정적으로 성령의 활동의 결과이다. 죽은 예수의 몸에 다시 생명이 부여된 것은 이 복음서에서 이미 예고된 생명을 주는

성령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앞서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요한복음 11:44)과 같지 않다. 나사로는 옛 창조에 속한 자가 옛 창조로 회생한 것이지만, 예수의 부활은 옛 창조에서 다시 죽지 않는 새 창조로 부활했다. 요한복음 20-21장의 부활 내러티브는 이 새 창조가 가진 독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예수의 모습은 제자들이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달랐고, 부활한 예수는 닫힌 문과 상관없이 제자들이 있던 방에 현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가현설적(docetic)인 영적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제자들과 함께 먹는 장면에서 보여준다(요한복음 21:13). 반면에 이 새 창조의 예수가 죽음 전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와 동일인이라는 것은 부활 후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있는 고난의 상처에 의해 담보된다. 부활한 예수의 몸은 피조세계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나타난 새 창조의 실체였다.

다시 살아난 예수의 몸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그의 몸에서 역사하는 생명을 주는 영의 활동이다. 부활 전 예수의 몸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은 옛 창조에 속한 그의 성육신한 육체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가 영화롭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만 그 성령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공유될 수 있었다(요한복음 7:39). 요한복음 20:22은 그 변화가 이제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고, 새 창조에 속한 그의 부활한 육체는 그 생명인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하고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즉 예수의 부활한 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의 실체인 성령을 뿜어내는 플랫폼이 된 것이다. 여기서 성령은 예수 자신의 부활한 몸을 통해 나누어지는 예수의 영,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영이다(요한복음 14:26). 이 성령은 부활한 예수를 인식시키고, 그와 연결시키는 영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수의 부재시에도 예수의 현존을 인식시키고, 예수와 실제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성령의 활동은 바로 요한복음 20:22에 수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성령의 활동은 요한복음 1-12장에 언급된 성령의 활동과 14-16장에 언급된 성령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성령은 생명을 준다(6:63). 이 성령이 위로부터 태어나게 한다(3:6). 이 성령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이 된다(4:14; 7:38). 이 성령은 또한 보혜사이다. 그는 제자와 영원히 함께하고(14:16), 제자들 안에 있을 것이다(14:17). 그는 예수를 증언할 수 있게 해 주고(14:26),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게 할 것이다(16:8-11). 그는 바로 지상의 예수를 대신하여 제자들을 도울 것이고(16:7) 모든 진리를 알게 하고(16:13), 예수의 것과 예수의 영광을 알게 할 것이다(16:14). 결정적으로 그는 ‘내 이름으로 보내지는’ 성령이다(14:26).

이 성령, 또는 이 성령의 활동은 ‘내주하는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인도하는 영’이라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신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영이다. 이는 지상의 제자들이, 지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활한 예수를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부활한 예수의 몸인 새 창조와의 생생한 연결을 보장한다. 이는 목자의 음성이며,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행해야 할 빛이다. 예수가 보내신 분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행하지 않았고(요한복음 5:19), 그 분의 명령이 곧 생명이었던 것처럼(요한복음 12:50),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보내신 분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계시, 그 분이 현재 말씀하시는 명령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며, 그들을 위로부터 난 자로 살아가게 한다(요한복음 3:8).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삶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는 예수의 새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성령의 활동이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은사적인 ‘예언의 영’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22의 성령수여는 새 창조의 영이며, 이는 믿는 자를 새 창조와 연결되게 하고, 신자의 삶에서 그 연결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핍박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현존을 확신하게 하여 그 상황을 감당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여전히 이 성령은 계시적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이 성령의 활동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의 성령은 표적을 일으킨다. 이 표적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자, 곧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한다(요한복음 2:11, 23; 4:48, 54; 6:2, 14;

9:16; 12:18, 37; 20:30). 세상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요한복음 4:48). 예수 of 부활한 몸 자체는 이러한 성령의 활동이 가져온 결과물이며, 예수의 증언에 대한 최종적인 표적이자 실체이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활동은 신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성령의 활동과는 다르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의 삶은 내적으로는 보낸 자인 아버지를 계시하는 성령에 철저히 의존되어 있다. 예수는 그를 보낸 아버지와 항상 연결되어 있고(요한복음 16:32), 아버지는 그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주신다(요한복음 12:49). 그런데 그가 계시를 받아 순종함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은 기적을 가져온다. 그것이 곧 표적이다. 이 표적은 예수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낸 자의 계시를 믿고 순종할 때, 그에 따라 성령이 실행하신다. 아버지는 항상 이들의 말을 들어준다(요한복음 11:42). 기적은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이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는 ‘외적 증거의 영’이며 ‘보여지는’ 성령의 활동 또는 ‘성령의 나타남’이라 할 수 있다. 이 표적들은 예수가 하는 증언이 참임을 확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또한 두 개의 독립된 증언이 가져오는 법적 증거의 효력을 일으킨다. 즉 성령의 내적인 계시를 따라 증언하는 자의 말과 그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확증하는 증거는 두 증인이 되어 법적 증거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요한복음은 오순절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하지 않지만 오순절의 자리를 남겨 놓고 있다. 이는 먼저 이 복음서 전체가 제공하는 표적의 논리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제자들은 요한복음 20:22에서 부활한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고 새 창조의 예수와 연결되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오순절과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제자들의 증언은 아직 도마조차도 믿게 할 수 없었다. 제자들의 증언은 외적 증거인 예수의 부활한 몸에 의해 뒷받침됨으로 믿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분명 변곡점을 맞았던 것 같다. 예수의 몸이 더 이상 현현하지 않는 때에도 그와 같은 외적 증거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그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요한복음을 마무리짓는 21:20-25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20:22과 다른 오순절의 가능성을 농밀하게 함축하고 있다. 창조이야기의 맥락에서는 이 부분을 새 창조주간의 넷째 날인 광명체의 출현이나 에덴의 제사장 위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한복음 21:24은 사랑받는 제자가 참된 증언인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한다. 이 복음서는 단순한 자기 기억의 회고가 아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사건의 신학적 의미까지도 부활 후의 관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2:22; 7:39; 12:37-41). 이러한 부활 후 관점에 의한 사건의 기억과 재해석은 바로 보혜사의 활동으로 약속되었던 것이다(14:26). 사랑받는 제자는 이 복음서가 약속한 성령을 자신이 받았음을 이 복음서의 현존 자체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제자의 증언은 “우리”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그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증언을 확정하는 가시적 표적을 이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사도행전 오순절의 자리가 있다. 요한복음은 오순절을 잘 알고 있고 그 자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 복음서 안에서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굳이 지적하라면, 그것은 요한복음 21:24이 될 것이다.

5. 결론

요한복음 20:22의 성령수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과의 부조화 때문에 오랫동안 해석의 난제로 여겨져 왔다. 카슨이나 멘지스는 오순절에 초점을 두고 요한복음 20:22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요한복음의 내부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브라운이나 김동수는 요한복음의 내적 논리에는 충실하려 했지만 오순절의 위치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던과 터너는 두 사건의 분리를 역사적 과도기에 국한시키면서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이 두 사건이 가진 구분되는 성격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요한복음 20:22이 위치해 있는 요한복음의 내부적 맥락과 새 창조의 강한 인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 성령수여와 오순절의 관계도 잘 조화시키지 못했다.

요한복음의 내부적 맥락은 이 복음서에서 약속되는 성령이 요한복음 20:22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가리킨다. 이 복음서 안에서 *πνεῦμα*의 용례는 성령에 대한 특별한 구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이들은 요한복음 20:22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또, 이 복음서 안에서 ‘정결의 영’과 ‘예언의 영’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성령의 활동이 있다는 주장은 이들이 모두 요한복음 20:22에서 성취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정말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인지 의문을 남긴다.

요한복음 20:22의 *ἐμφύσαω*는 이것이 새 창조의 사건임을 강하게 인유하고 있다. 이러한 단서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 에덴이야기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를 요청한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창세기 창조이야기의 인유는 요한복음 20:22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초두의 “태초에(*ἐν ἀρχῇ*)”와 1장이 보여주는 날들의 진행은 이 복음서와 창세기 창조이야기와의 긴밀한 관련을 암시한다. 요한복음 전체 구조가 창세기 1-2장을 인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논자의 연구는 요한복음 20:22이 가진 새 창조의 맥락에 대해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그 연구에 따르면 요한복음 1장과 20-21장은 창조주간의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대응시키는 인클루지오를 이루는데, 이는 요한복음 20:22의 새 창조가 부활한 예수를 새 아담으로 이해하게 하고, 21:20-25의 증인이라는 주제를 창조주간의 넷째 날 광명체의 창조와 연결시켜 이해하게 한다. 이는 요한복음 20:22의 성령수여와 구분되는 또 다른 성령수여 사건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암시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명시적인 성령에 대한 약속들은 20:22에서 새 아담의 출현으로 성취되었다. 이는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 제시되는 생명을 주는 성령, 성전을 대체하는 성령, 말씀인 성령,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인 성령,

그리고 박해의 상황에서 예수를 대신하는 보혜사 역할의 성령을 모두 아우른다. 이 모든 것은 ‘내주하는,’ ‘계시하는,’ 또는 ‘인도하는’ 성령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이 성령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을 가져오는 표적은 또 다른 성령의 활동을 보여준다. 이는 예수의 부활한 몸이 가지는 의의처럼 ‘외적 증거의,’ ‘가시적인’ 성령의 활동이다. 이는 ‘계시하는’ 성령의 활동과 구분되는 또 다른 성령의 활동이고 이는 오순절 사건과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성령의 활동을 요한복음은 의식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에서 이에 대한 자리를 굳이 찾는다면, 사랑하는 제자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언하는 “우리”가 등장하는 21:24을 지목할 것이다.

<주제어>

요한복음 20:22, 성령수여, 오순절, 창조이야기, 인유

<Keywords>

John 20:22, Giving of Spirit, Pentecost, creation story, allusion

* 접수일 2021년 3월 5일, 수정일 2021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7일

참고문헌

- 김동수, 『생명의 복음』, 용인: 킹덤북스, 2016.
- _____, “성령을 받으라(요 20:22),” 「신약논단」 26:4 (2019), 981-1010.
- 김희준, “창세기 1-2장이 암시된 요한복음의 구조,” 철학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2019.
- _____,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들’(요 1:50)의 의미,” 「신약논단」 27/4 (2020), 977-1012.
- 유은걸, “요한복음서의 성령 이해,” 「신약논단」 21:4 (2014), 993-1028.
- 장동수, “원문의 구두점 때문에 달라지는 성경 해석에 대한 소고,” *Canon & Culture* 2:1 (2008), 275-96.
- 조석민, 『이해와 설교를 위한 요한복음』, 서울: 이레서원, 2019.
- Bauckham, Richard, “The Fourth Gospel as the Testimony of the Beloved Disciple,” Carl Mosser ed., *The Gospel of John and Christian Theology*, Cambridge: Eerdmans, 2008, 120-139.
- Beasley-Murray, G. R., *John*, *Word Biblical Commentary* 36, Waco: Word, 1987.
- Brown, Jeannine K., “Creation’s Renewal in the Gospel of John,” *CBQ* 72 (2010), 275-90.
- Brown, Raymond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XIII-IXX, AB 29a*, Garden City: Doubleday, 1970.
- Carson, Donal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 Dunn, J. D. G., *Baptism in the Holy Spirit*, London: SCM, 1970.
- Resseguie, James L., *Narrative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 Keener, Craig S.,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2003.
- Kruse, Colin G., *John: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2nd ed.,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7.

- Menzies, Robert P., 김동수 역, “초기교회 성령론 발전에 있어서 요한의 위치,” 「오순절신학논단」 9 (2011), 227-48.
- , *Empowered for Witness: The Spirit in Luke-Ac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Morris, Le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5.
- Siliezar, Carlos R. S., *Creation Imagery in the Gospel of John*,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5.
- Stibbe, Mark, *The Gospel of John as Literature*, Leiden: Brill, 1993.
- Turner, Max, *The Holy Spirit and Spiritual Gifts in the New Testament Church and Today*, Carlisle, UK: Paternoster, 1999.
- Waltke, Bruce K. and Cathi J. Fredricks,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초록>

요한복음에서 오순절의 자리

김휘준

(평택대학교 박사)

요한복음 20:22의 성령수여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의 관계는 신약학의 난제이다. 먼저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했던 도널드 카슨, 레이몬드 브라운, 제임스 던, 로버트 멘지스, 막스 터너 그리고 김동수의 주장을 분석하였다. 각 주장은 나름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새로운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요한복음의 문학적 구조와 요한복음 20:22의 “숨을 내쉬다”가 보내는 새 창조의 인유들을 재고함으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몇몇 학자들이 제안한 바와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한복음의 내적 맥락은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한 약속들이 구분되지 않으며 모두 요한복음 20:22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가 창세기 1-2장의 창조이야기를 인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나의 다른 연구는 요한복음 20-21이 1장과 인클루지오를 이루면서 창조주간의 첫 나흘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통찰은 요한복음 20:22이 새 창조의 첫째 날 사건으로, 요한복음 21:20-25를 새 창조의 넷째 날 사건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는 요한복음 20:22의 부활한 예수가 새 아담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과 요한복음 21:24의 증인에 대한 언급이 또 다른 성령 수여와 연관될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요한복음 20:22은 예수가 가져온 새 창조와 신자를 연결시키는 성령의 계시적 활동을 가리키고 있고, 이는 이 복음서가 약속한 모든 성령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성령의 활동도 묘사하는데, 그것은 기사와 표적에 관계된 ‘외적으로 증거하는’ 또는 ‘가시적인’ 성령의 활동이다. 이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과 연결될 수 있으며, 요한복음 안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리를 찾는다면 증언하는 “우리”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21:24을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lace of the Pentecost in the Gospel of John

Whiejun Kim
(Pyeongtaek University, Ph. D.)

The issue of the bestowal of the Holy Spirit in John 20:22 with regard to the Pentecostal event in Acts 2 is a crux in New Testament studies. This study starts by analyzing the claims of scholars such as Donald Carson, Raymond Brown, James Dunn, Robert Menzies, Max Turner, and Dongsoo Kim, who have each tried to solve this issue. The analys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no one solution is satisfactory, and further studies are needed for solving the problem.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a new solution by reconsidering the literary structure of John's Gospel and the allusions to the new creation signaled by "breathing out" in John 20:22.

In contrast to the suggestions of some scholars, this study shows that in the literary context of John's Gospel, the promises of the Holy Spirit are undifferentiated and are altogether fulfilled in John 20:22. In addition, under the researcher's own view that the entire structure of John's Gospel implies the creation story of Genesis 1–2, John 20–21 forms an *inclusio* with John 1 to reflect the first four days of the creation week. John 20:22 can be seen as an event on the first day of the new creation week and John 21:20–25 as an event on the fourth day of the new creation. This suggests that the resurrected Jesus in John 20:22 can be understood as the new Adam, and that the mention of witnesses in John 21:24 may be associated with another bestowal of the Holy Spirit.

From this analysis, we can see that John 20:22 refers to the revelatory activity of the Holy Spirit that connects believers with the new creation brought by Jesus. Such activity is the fulfillment of all the promises of this Gospel concerning the Holy Spirit. Moreover, John's Gospel describes another activity of the Holy Spirit, which is the "external witness" or "visible" activity of the Holy Spirit in relation to signs and wonders. This activity can be linked to the incident of Pentecost in Acts, and if we are to find a specific place in John's Gospel, we can point to John 21:24, where the witnessing "we" appears.